보도

9개 관련기사 총 조회수 '19,000여 회' 구성원, '캠퍼스 통합' 문제에 주목

하나의 경희 돌아보기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지난 10월부터 연재해온 '캠퍼스 통합' 관련 기사가 구성원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기획 시리즈는 10월 12일 대학주보 1597호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발행된 1600호까지 관련기사 총 9개에 '캠퍼스 명칭', '유사학과 논란', '입시·취업시 대외 표기 논란'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구성원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이원화 캠퍼스'에 대한 인식차는 캠퍼스 별로 현격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리즈 기사의 의제는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4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캠퍼스 통합' 관련 이슈 분석과, 우리 신문이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학내 구성원 5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성원 '이원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반영해 선정됐다.

관련 기사 중 가장 높은 주목도를 보인 내용은 캠퍼스 명칭 변경의 역사와 향후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한 명칭 변경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한 '길게 읽기 - 국제캠퍼스는 왜 '국제'캠퍼스 인가요' 기사였다. 본 기사는 지령 1600호에 총 3면에 걸쳐 게재됐으며 지난달 30일 온라인 업데이트 이후 이달 4일까지 5일간 총 4,035회(12월 5일 오후 12시 04분 기준)의 조회수와 447건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주요 댓글로는 "소속 학과는 상관도 없으면서, '국제' 명칭만 붙인다고 다 글로벌해 지는가", "이원화 방향성의 모호함이 드러나고 대외적 인식에도 좋지 않다", "그럼 서울은 '국내캠'으로 바꿔라" 등 캠퍼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고, "학교 측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해결을 미뤘다간 본·분교 이미지의 고착화만 이뤄진다"와 같이 드러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아쉬워하는 댓글 또한 상당수였다.

앞서 게재된 '국제캠 학생은 영어학부 다전공 불가? - 캠퍼스 간 다전공 불가 문제' 기사와 '이과대학·응용과학대학, '특성화'인가 '유사학문'인가? - 전문가들, 배우는 내용에 차이 없다고 평가' 기사에서는 '캠퍼스 간 유사학과'에 대한 구성원의 공통된 의견이 드러났다. "일부러 학과를 선정해 '특성화'시킨 줄 알고 입학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속은 것 같다"라는 재학생 의견부터 "같은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면 '중복'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의 유사학과 운영 형태는 '분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유사학과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요소임을 공통으로 짚어내고 있었다.

관련기사 9개 댓글에서는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미래의 올바른 이원화에 대한 구상'과 '캠퍼스 간 성적차이'가 논의대상에 올랐다. 우리신문이 분석한 조회수 상위 5개 기사의 댓글 696개의 '어휘 빈도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미어학부, 영어학부와 같이 유사학과에 관련한 어휘가 각각 135회, 121회로 가장 많은 노출 빈도를 보여 구성원이 '올바른 이원화의 구상'에 대해 유사학과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이과대학-응용과학대학 유사성 논란' 기사 댓글에서도 '통합'과 관련된 어휘와 더불어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배치표, 입결(입학성적) 등도 어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캠퍼스 간의 입학성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입학처의 실제 설명과는 다르게, '인식'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외국어대학'을 185회, '입결'을 111회 언급하며 특정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타 대학 중에선 '성균관대'가 8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더불어 이과와 문과, 계열에 대한 언급도 도합 170여회 수준으로 많았다. 이는 어떤 형태든 양 캠퍼스 간의 이원화 기준이 성균관대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프라임사업과 중복학과, 폐과 등의 단어도 눈에 띈다. 위 어휘는 프라임사업을 기반으로 양 캠퍼스 학과분리를 추진하자는 주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문, 본분 등의 어휘도 나타나, 단순히 정부주도의 학과통폐합 문제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학) 원장은 이 같은 구성원들의 반응에 대해 "유사학과 문제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근거가 충분하다면 중복이더라도 운영할 수 있고, 합치는 게 좋다는 결론나면 합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입시정보 분리표기 개선 등 '한 학교'의 인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총학, "프라임사업 진행 졸속적" 대학본부, "교육부 일정 자체가 촉박"

총학 - 대학본부 면담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대학본부 측이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의 면담에서 큰 예산이 걸려있는 만큼 프라임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일 서울캠 본관에서 프라임사업과 관련해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의 면담이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서울캠 총학이 부총장실 측에 프라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양 측은 프라임사업 진행방향부터 '소통'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쟁점은 '사업 준비기간'이었다. 사업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총학 측과 교육부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학본부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 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부회장은 "당장 12월 4일까지 단과대별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그 이후에 심의과정과 소통과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교육부에 사업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균태 부총장은 "애초에 교육부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면서도 "큰 예산이 걸려있는 사업인데다 우리학교가 사업에 선정될 역량이 있는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측은 우리학교의 장기 발전 계획과 프라임사업 참여 요건이 마침 맞아떨어져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결코 프라임사업 선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학교가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선도적으로 변화하려는 지속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프라임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요즘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한다. 때문에 학문간 융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큰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 측은 인문학을 중시하는 우리학교의 학풍을 저버리고 '융합'이란 이름으로 결국 학과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 김중백 부원장은 "단순히 학과를 없애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학문의 수월성과 독자성을 지키는 선에서 새로운 융합학과를 창조해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학본부 측은 구성원간의 소통을 약속했다. 한 부총장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이라며 "현재 각 단과대의 학장끼리 만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학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학생 대표들도 포함된 소통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니 대학본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 측은 단과대별 계획안 제출이 마감되고 난 후 2차면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 주 내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캠퍼스 총학 또한 비슷한 시기에 대학본부 측과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본관에서 대학본부와 총학이 면담을 하고 있다

12월 둘째 주(12.7~12.1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취업특강

특강제목	일시	장소
방학의 의미와 취업(전략적 이용)[박창욱 교수]	12.7(월) 13:00–14:30	청운관 B117호
와국계 기업 취업 전략[이정호 교수]	12.8(화) 12:00–14:0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취업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상담–예약신청,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내용 확인 후 신청)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취업준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집단상담)

특강제목	일시	장소	신청방법
졸업생 취업진로 특강 및 집단상담 [오신종 교수님]	12.7(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종합정보시스템 – 상담 – 예약신청,에서 신청
로스쿨 진학준비 특강 및 집단상담 [박언경 교수님]	12.8(화) 12:00–14:00	청운관 1층 4번 상담실	종합정보시스템 – 상담 – 예약신청,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안내

● '취업성공패키지'란?
1)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상담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 후 진로 및 취업목표설정을 통해 취업까지(최장 1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직무 분석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특강을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단계 별 참여 수당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미취업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히 신청하여 취업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혜택

진행단계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기간
1단계 : 기초상담	– 목표수립,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참여수당(15만원)지급	1주~3주
2단계 : 직업훈련 (선택사항)	– 최소 2회이상 구직활동 후 훈련참가 가능	6개월 (훈련기간)
	– 일반직종과정 훈련 *훈련비200만원(자비분담10%~30%) + 훈련수당 최대 월28만 4천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훈련비 전액 + 훈련수당 최대 월41만원 6천원 훈련과정검색 www.hrd.go.kr 참조	
3단계 : 집중취업상담	– 취업정보제공, 집중취업알선, 면접클리닉	3개월~6개월

※세부사항은http://www.work.go.kr/pkg/index.do 참조

● 참여 대상자 :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
※ 참여제한 :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emhong48@unies.com)로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참가신청서

이름	학번	학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인)

※세부 문의사항(유니에스중부센터) : Tel. 02–6011–1335~1337 Email. gemhong48@unies.com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 위치: 청운관 1층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 경희역사특별전 "Story, 경희의 역사가 되다"

1. 일시 : 2015. 12. 8(화) ~ 12. 11(금)
2.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3. 전시 내용 :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경희의 역사 발자취

● 제 4회 세계영화제 : 일본편

영화명	일시	해설	장소
誰も知らない (아무도 모른다) – 감독 : 是枝裕和 – 주연 : 柳楽優弥, 北浦愛, 木村飛影	2015. 12. 7(월) 15:00 ~ 17:40	이지연 교수 (일본어학과)	중앙도서관 AV실 영상세미나실
告白 (고백) – 감독 : 中島哲也 – 주연 : 松たか子, 岡田将生, 木村佳乃	2015. 12. 9(수) 15:00 ~ 17:10		

※ 행사장 수용인원 관계로 참여자는 선착순 40명에 한함.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존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예 :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